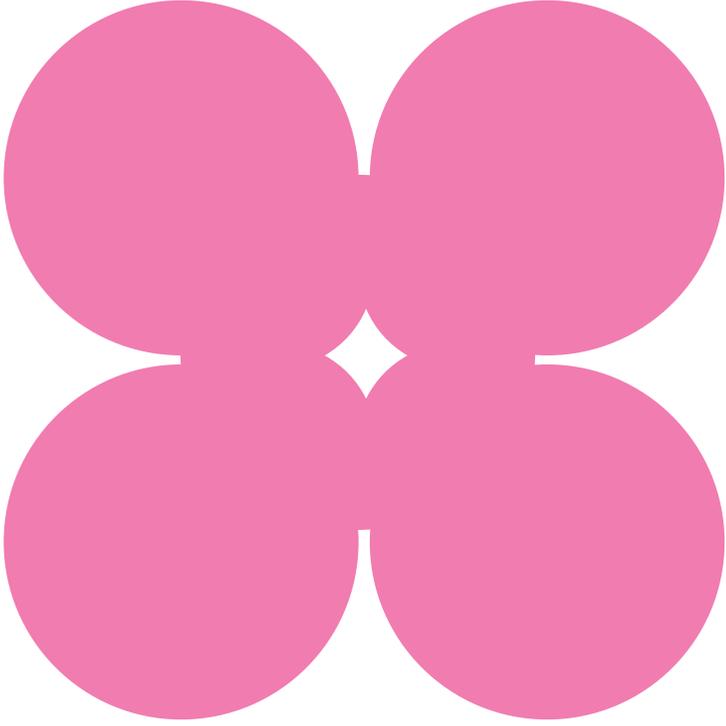


공감 그리고
2023 결



Vol.
48



‘결’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온 우주만큼 중요합니다.
이 봄, 그 이야기의 주인공 당신에게
Chat, 말을 겁니다.



겨울

봄별이 찬란합니다. 하지만 미처 떨어지지 못한 한겨울의 기억처럼 바람은 힘이 남아 있습니다. 가까스로

햇은 민들레 흙씨뚝은 가볍게 하늘 높이 날려 올립니다. 바람의 무등을 타고 올라간 흙씨는 롤러코스터에서 환호하듯 휘리릭 돌아 자기 땅을 찾습니다. 빛과 바람이 일으키는 풍경은 하루 종일 말을 걸지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기의 숨결은 이 봄이 건네는 수다입니다.

이른 봄부터 『공감 그리고』 편집진은 독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역은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 개인은 신자유주의 효율성이라는 프레임에서 안착하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초연결된 현대사회이지만, 여전히 이곳과 저곳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지역과 중심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주변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체제에 뒤처진 세대일 수도 있고, 아파트 재개발의 뒷안길에서 사라지는 골목길, 기록되기도 전에 붕괴되는 도시의 기억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더니티가 구성하는 거대서사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지역과 개개인의 미시사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공동의 역사에서 지역과 개인은 주목받지 못했지요. 하지만 포스트모더니티 시대, 그것은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공감 그리고』 역시 공감의 진정한 지평을 넓혀가기 위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기억해야 할 사람들, 놓쳤거나 놓칠 뻔한 문화적 가치들을 더욱 안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게 된 주제가 '결'입니다. 결은 타자이자 동반자입니다. 주체가 아니기에 타자이지만 그와 동시에 주체와 함께하는 존재이기에 동반자이지요. 이 책이 경계와 주변에 속한 타자와 더욱 함께하겠다는 의지이자 각자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실은 다성악, 바흐친의 대화 이론을 빌리자면 폴리포니아(polyphony)를 담겠다는 꿈입니다.

봄호는 '결'의 시작으로 이 대화를 수다로 읽어보았습니다. 서로가 마주하며 쏟아내는 말은, 텅 빈 스펙타클의 시대, 교감을 넘어 공감으로, 오늘을 지나 내일로 손 붙잡고 넘어가게 할 테니까요. 대화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는 꽤 진지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수다는 자신의 소소한 일상, 출렁이는 감정을 여과 없이 터뜨리는 모습이지요. 그 수다의 끝에는 '공연히 많은 말을 했나'라는 후회가 한숨처럼 새어나올 때도 있지만, 그것도 수다를 나눴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정서적 해소, 사유의 전환이 아닐까 합니다. 한편, 수다를 듣는 사람은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는 그 말들의 속살거림 속에 폭 빠져서 한참을 사로잡히고 맙니다.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2014년 영화 <Her>에서 대필 작가 테오도르가 인공지능 운영체제(지금의 챗GPT 같은 체제이겠지요) '사만다'와 일상의 소소한 수다(Chat)를 나누는 동안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듯이요. 수다를 나눈다는 것은 사만다와 주인공의 아내-함께 자랐고, 사랑하여 결혼하였으나 소통 부재로 막 이혼을 앞둔-가 서로 대비를 이루는 지점이지요. 주인공은 사만다를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혼밥이니, 혼술이니, 혼영이니 하는 것이 특이한 문화로 여겨졌습니다. 대화 없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옆 사람의 온기 없이 영화를 보는 일이 영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 실제계로부터 가상계로의 이동은 사람들을 개별화시키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커뮤니티와 수다를 영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 우리 모두에겐 수다가 필요하거든요. 2022년 11월 미국 오픈 에이아이(Open AI)가 출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는 문화예술계에도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감정까지 공유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화의 즉문즉답은 꽤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 챗이 강조된 데에는 챗GPT의 돌풍도 한몫합니다. 그래서 “시선”에서는 챗GPT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설치미술작품 <공조하는 기계들>을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전시했던 노진아 작가가 ‘ChatGPT 시대의 예술’을 썼습니다. 또 로컬 생산자 박보은이 문화기획자들과 챗GPT 실제 사용 경험과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시절과 공간”은 부산 문화예술인들의 삶에 묻어있는,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던 미시사를 통해 부산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들추어 보는 지면입니다.

이번 호에는 1975년부터 부산공간화랑을 운영해 온 신옥진 대표의 그때 그 시절 속에서 부산 미술계의 소중한 기억 몇몇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소설가 오성은은 젊은 극작가 김지훈의 히든 플레이스를 함께 걸으며 부산의 공간들을 짚어냅니다. 봄호의 “작가 공책”은 김민정 작가의 <오래-감만>입니다. 감만동 일대는 재개발이 시작되어 주민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김민정 작가가 붙잡아 둔 풍경은 오래지 않아, 사라지게 되겠지요. 하지만 감만동의 크고 작은, 낡은 집들은 그림 속에서 오랫동안 오손도손 머물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에서는 무무무용단 대표 허경미와 영주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춤비평가협회 2022년 춤비평가상 수상자라는 외적인 업적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예술 지평을 일구어가는 춤꾼 허경미의 내적인 수다를 오랜 지인인 조봉권 기자가 들어보았습니다. 김미양 작가는 영주동을 읽어줍니다. 동네를 허물지 않고 문화적으로 기획해가는 영주동 주민들의 예술 활동 이야기가 따뜻합니다. “지금” 지면은 부산의 문화예술 현장 소식입니다. 최근 문을 연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별관 개관 기획전시 <부산의 책>과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너머”는 『공감 그리고』의 끝나지 않는 이음을 의미합니다. 매 호 새로운 초단편 소설을 선보이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공감 그리고』의 구성에 변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글 제목으로 정성 들여 세운 “엽”, “시선”, “시절과 공간”, “작가 공책”, “사람과 사람들”, “지금”, “너머”입니다. 부산 문화예술인들과 작품 활동, 부산 문화판의 주요 흐름뿐 아니라, 작가들의 창작 세계(작가 공책)와 초단편 소설(너머)을 보태어 종합예술잡지 성격을 한결 선명히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펼쳐 보임으로써 한 계절, 이 책이 독자의 손안에 쥐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설가 오성은, 로컬 생산자 박보은이 부산문화재단 편집진과 함께 참여하여 감각적으로 엮어가는 2023년 『공감 그리고』는 독자의 곁이 되겠습니다.

‘곁’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온 우주만큼 중요합니다.

이 봄, 그 이야기의 주인공 당신에게

Chat, 말을 겁니다.

곁에서 나누는 이 봄

글.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기획경영실장, 부산대학교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도시문화정책: 부산 문화 현장을 통해 본 문화다양성의 지역회복 함의」라는 국제학 박사논문을 썼고 또 한 편의 예술학 박사논문을 쓰고 있다. 『음악용어의 탈식민성: 번역되기』에서 ‘번역하기’로: 금수현의 『표준음악사전』을 중심으로, 「신무용과 부산」 등의 논문이 있다. 책임편집 및 공동집필한 책 『우리-문화예술교육』(2020), 『지역-문화예술교육』(2020), 『청문청담-부산청년문화백서』(2021) 등을 내었다.

ChatGPT 시대의 예술



노진아, <공조하는 기계들>, 2022, 인공지능기반의 로보틱스조각, 혼합매체, 140×140×180cm의 두상 7개, 아르코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부산현대미술관커미션

글·사진. 노진아

뉴미디어 예술가,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조교수. <진화하는 신, 가이아>(2017), <테미스, 버려진 AI>(2021) 등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관객과 대화와 표정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간형 로봇 및 실시간 인터랙티브 영상 작품을 한다.

2022년 11월 말 OpenAI사가 자사의 GPT-3.5모델에 기초하여 개발된 챗봇서비스인 'ChatGPT'를 발표했다.⁰¹ 그리고 두 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해 버렸다. 학계 및 관련 업계, 대중을 비롯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난리가 났다.⁰² 이날 이후 매일같이 뉴스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서 ChatGPT 또는 AI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기존 서비스의 확장에 힘입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야흐로 ChatGPT에 의한 빅브라더 아니 빅 크리에이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ChatGPT에 앞서서 흔히 AI, 즉 인공지능과 동격으로 떠오른 단어로 '딥러닝'이 있었다. 딥러닝은 1950년대에 처음 개념이 개발된 인공신경망이 그 시초였으나, 당시 컴퓨터 성능의 한계로 인해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상태로 오랜 시간 동면해 있다가, 2012년 이미지 자동 인식 대회인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ILSVRC)에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상의 전면으로 다시 등장했다. 그 전에는 매년 1% 성능 개선도 겨우 이루어지던 이미지 인식 성능이, 딥러닝 방식을 적용하자 갑자기 10% 이상 압도적인 성능 차이로 다른 모델을 모두 따돌려 버린 것이다. 홀로 오랜 시간 인공신경망 연구를 해왔던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지금 구글뿐만 아니라 ChatGPT를 개발하고 있는 OpenAI 등에서 활발히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⁰³

기본적으로 이들이 갖는 특징은 뇌의 신경 모델을 흉내 낸 매우 많은 설정 파라미터를 갖는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모델에, 많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입력하고, 의도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설정 파라미터를 계속 조정하는 것이다. 흔히 '학습'이라는 과정이 이 설정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0과 1로 표현된다고 하지만, 이 설정 파라미터는 0과 1 사이에 있는 다양한 중간값을 취할 수 있도록 모델링되어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0과 1로 표현되는 극히 추상적인 컴퓨터 모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 실제 뇌의 저장 과정을 흉내 내기 시작한 것이다.

ChatGPT는 기본적으로는 챗봇, 즉 '사람이 언어로 입력을 하면 이에 대해 적절히 응답을 하는 기능'을 구현한 서비스이다. 이 목적을 위해 사람이 입력하는 자연어 입력을 분석하기 위해 1,750억 개 이상의 변수를 갖는 언어 분석 모델을 설계해 넣었고, 이 언어 모델이 잘 동작하도록 매우 많은 데이터, 구체적으로는 2021년까지 입력된 웹 데이터를 수십억 건 입력했다.⁰⁴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출력을 생성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작을 시험하면서 잘못된 출력을 생성할 때마다 일일이 수동으로 조정을 했고, 지금도 이 '지도학습'을 매일 진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모델이 동작하기 위해 매일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추정한다.⁰⁵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AI 이미지 생성서비스가 출시되어 왔다.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의 텍스트 입력(프롬프트, prompt)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Midjourney(<https://www.midjourney.com>), Stable Diffusion(<https://stablediffusionweb.com>), DALL-E(<https://openai.com/product/dall-e-2>) 등의 해외 사례가 있고, 국내 카카오 및 네이버 등에서도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텍스트 몇 줄만으로, 과거 유명했던 특정 화가의 화풍으로 이미지를 변경해주는 것은 물론이며, 아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생성된 이미지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완성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물을 다양한 곳에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이 결과물로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제작하는⁰⁶ 등의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저작권에 대한 논쟁 또한 치열한 상황이다.

ChatGPT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물의 활용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⁰⁷ 과거 거칠기 짝이 없던 챗봇 수준을 상당히 넘어서서, 언뜻 읽히기에는 마치 사람이 쓴 것 같은 수준의 텍스트를 생성해 낸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숙제를 하거나, 논문이나 기사를 쓰는 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 연구윤리에 관련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ChatGPT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언어 즉 자연어를 학습하기 위해, 웹에 있던 많은 내용이 입력되는 과정을 거쳤기에, 거꾸로 어떤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에 관련된 내용으로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결과물이 되는데,

자칫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거나 엉뚱한 내용으로도 그럴싸하게 문맥을 구성해낸다. 이는 ChatGPT의 목적 기능이 '사실의 검색'이 아닌 '문장의 생성'이기에 당연히 빚어지는 결과다. 요약하면, ChatGPT는 사용자가 어떤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가 나오는 것이 적절할지 '이어지는 대답을 예상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인 언어 모델이다. 이는 이른바 만능 '강 인공지능'이 아니다.

논쟁이 뜨겁다 보니 ChatGPT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오해를 불식시켜야겠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네 인생의 이야기(영화명: 콘택트)』로 유명한 테드 창(Ted Chiang)은 ChatGPT의 학습 모델과 유한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한 근본적인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지적을 했고,⁸⁸ 스티브 잡스(Steve Jobs)와 함께 애플 컴퓨터를 창립했던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도 마치 자동차의 자동주행 기능과 마찬가지로 판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⁸⁹

ChatGPT를 비롯해서 다양한 AI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과거 특정 기술이 필요한 직업군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는 듯하다. 사진 기술이 등장하면서 초상화를 그리는 직군이 거의 사라져 버렸고, 3D 프린터가 등장하자 조형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듯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이제 이미지를 편집하고 그리는 기술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 가능한 수준이 되어 가고 있다. 언뜻 느끼기에 '창작'의 영역을 인공지능이 침범해 오는 것이 아닐까 싶은 느낌도 있다.

예술이 발전해왔던 역사를 보면, 자연과 인체를 탐구하면서 그 형태를 충실히 재현하고자 했던 시절을 거쳐, 사진술의 발달로 재현적인 작품보다는 작가의 의도와 맥락이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새로운 매체가 개발될 때마다 예술가들은 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뉴미디어아트가 대표적인 것으로,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가 등장하면 이를 기반으로 시도할 수 있는 예술 분야가 탄생되어 왔다.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¹⁰, 서울문화재단의 융합예술지원사업 ‘Unfold X’¹¹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아이디어의 기획 구현이나, 기술융합 창제작지원 등 육성 지원이 활발한데,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작품이 시도되고 있다. 필자 역시 2004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대화시스템을 이용한 작품을 제작해왔다. <타이핑하세요, 나는 말로 할 테니>(2004), <제페토의 꿈>(2010), <진화하는 신, 가이아>(2017), <나의 기계 엄마>(2019), <테미스, 버려진 AI>(2021), <공조하는 기계들>(2022)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관객과의 실시간 대화를 관찰하다 보면, 의외로 관객들이 사람이 아닌 기계와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기술 자체를 넘어 작가의 의도와 소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작가도, 작품도 그리고 관객도 기술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알파고를 만들었던 구글의 딥마인드(DeepMind) 창립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Mustafa Suleyman)이 “AI는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인간이 제어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틀이지 위협이 아니다.”¹²라고 했듯이, 인공지능 서비스는 예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탐구 대상이자 새로운 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 프로그래밍을 잘 몰라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뉴미디어아트 장르에 이제 쉬운 프로그래밍 접근 채널이 열리고 있는 것이며, 디지털 이미지 편집이 낯설었던 이에게 아주 성능이 좋은 이미지 생성 툴이 주어진 것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의 툴보다 훨씬 쉽고 자동화되었지만 제대로 된 지시 없이는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지시를 해야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학습해야 한다. 어떻게 똑같이 그리는지를 중시하기보다는, 시각 언어로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자비스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토니 스타크가 뭔가 반짝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시를 해야 아이언맨이 근사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노진아, <진화하는 신, 가이아 An Evolving GAIA>, 2017, 레진, 나무, AI기반의 인터랙티브 시스템 등, 가변설치, 2017 image credit_봉산아트센터

- 01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2/dec/05/what-is-ai-chatbot-phenomenon-chatgpt-and-could-it-replace-humans>
- 02 빅카인즈 검색 결과, 최근 3개월('22.12.12.~'23.3.12.)간 ChatGPT에 대한 뉴스 기사는 4,131건 이상('23.3.12. 기준)
- 03 <https://brunch.co.kr/@hvnpoet/109>
- 04 <https://blog.invgate.com/chatgpt-statistics>
- 05 <https://www.ciocoverage.com/openais-chatgpt-reportedly-costs-100000-a-day-to-run/>
- 06 *Portrait of Edmond Belamy*, 2018, created by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는 인공지능 생성 작품이 2018년 10월 25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32,500(약 5억 원)에 팔렸다.
- 07 최근 Visual ChatGPT(<https://github.com/microsoft/visual-chatgpt>) 등 ChatGPT와 이미지 생성 기능을 결합하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 08 <https://www.newyorker.com/tech/annals-of-technology/chatgpt-is-a-blurry-jpeg-of-the-web> (2023년 2월 9일자 기고문)
- 09 <https://www.cnbc.com/2023/02/10/steve-wozniak-warns-about-ai-chatgpt-can-make-horrible-mistakes.html> (2023년 2월 10일자 인터뷰)
- 10 <https://artntech.arko.or.kr/artntech/>
- 11 <http://unfoldx.org/>
- 12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5/jun/09/deepmind-artificial-intelligence-tool-humans-control>

AI가 우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챗GPT는 '텍스트 생성 AI'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고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 분류, 자동 번역, 감성 분석 등에서 나아가 소설 작성, 광고 문구 생성 같은 창의성 관련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녔다. 향후 챗GPT가 문화예술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해본다.

글. 박보은

로컬 생산자. 디자인 스튜디오 '로크 스튜디오' 운영. 부산에서 로컬 관련 기획 및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에 대한 이야기와 연구를 기록하며 써내려가고 있다.

보은 챗GPT의 등장으로 일과 작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이러한 대화형 인공지능이 다방면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며 본 기술이 기능적 수행을 넘어 일과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담론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청년 4명과 함께 챗GP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두 분은 직장인이시고 두 분은 창작자예요. 일과 창작을 하는 환경에 따라 챗GPT에 대한 답변이 나눠질 것 같아요. 앞으로 챗GPT로 일의 자동화가 가능하며, 인간이 할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 그리고 창작 활동에서 챗GPT가 어느 범위까지 대체 가능할까요?

지훈 챗GPT를 하나의 '매체'로 생각해요. 그리고 아티스트들에게 '매체'란 '재료'예요. 아직까지는 창작 활동을 위한 '도구' 역할 정도로 인식되고 있어요. 작업을 하다가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날 때, 챗GPT에게 물어보면 몇 개의 키워드를 제시해 줘요. 그럼 저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제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작업해요. 이렇듯 아직까진 매체적 수단 정도인 것 같아요.

정우 곧 챗GPT 4.0을 쓸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사용자의 글쓰기 스타일을 학습하여 시나리오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이미지를 보고 캡션을 만들어주거나 이미지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고차원적인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상용화될 챗GPT 4.0은 사용자가 필요한 이미지 레퍼런스를 찾아주거나, 작업한 이미지 파일을 분류해 주는 등 단순한 업무가 가능해질 거예요. 효율성을 위해 '도움' 정도의 역할은 수행해 줄 수 있는 거죠.

혜령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야 해요. 결국 사람이 생각을 해야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챗GPT에 질문을 했을 때 원하는 답변을 한 번에 얻을 수 없어요.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질문을 하는 방법도 결국 사람이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대체보다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그리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도로 쓰이는 것 같아요.





대담. 이은진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에서 행사 기획하고 있는 콘텐츠 기획자, 부산에서 공공기관 행사 운영 위주로 일했으며, 현재는 식물, 기후 위기를 주제로 행사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은진 챗GPT가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 '부산시 교육청 주소를 알려줘'라고 질문했더니 틀린 주소를 알려줬어요. 네 번째 물어보니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행사를 기획하던 중 행사와 관련된 부산의 역사를 물어봤을 때도 다른 나라의 역사를 말했어요. 질문과 다른 내용을 답변한 경우가 많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 챗GPT를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과연 대체가 가능할까?'란 의심이 들어요.

보은 **혹시 실질적으로 일과 창작 활동에 있어 챗GPT의 도움을 받았던 분이 계실까요?**

혜령 회사에서 개발자분들이 에러 났을 때 '구글링'을 많이 해요. 최근에는 챗GPT에 물어봤는데 해결하지 못했어요. 원했던 답은 '이 부분이 잘못돼서 에러가 났어요'였는데 에러조차 파악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구글링'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에, 저는 퍼블리셔로, 정확한 답이 있는 CSS 언어를 사용해요. 웹상에서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코드로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이럴 때는 너무 유용했어요.

은진 저는 '과학 활동을 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려는데 프로그램 제목을 추천해줄래?'라고 물어봤었어요. 이때 나온 답변은 누구나 지어낼 수 있는 말들이지만, 그중에서 괜찮은 단어를 골라 제목을 지어보니 그럴싸했어요. 작업적 영감 정도는 챗GPT를 통해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정우 글을 쓰며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예로, 필름에 대해 글을 쓸 때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고 언제 상용화되었는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 검색하는 것보다 쉽게 답변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업무 효율과 생산성이 높아져 시간을 줄일 수 있었어요.

보은 챗GPT는 창작 활동을 도와주고, 일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한 각자의 사용 팁이 있나요?

정우 조건을 부여해서 글쓰기를 한다면 원하는 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미식에 관한 에세이를 쓴다고 했을 때 챗GPT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겠죠. '미식에 관한 에세이를 쓸 건데 '맛있다'라는 표현을 빼고 에세이를 써줘'라고 질문을 한다면 '맛있다'는 표현을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을 구사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일반적인 글을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 방법을 공부해서 질문해보길 추천해요. 조금은 차별화된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혜령 웹 개발 경우, 코드가 영어로 되어있다 보니 한국어로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얻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어로 써본 분에 의하면 답변 속도가 느리다고 해요. 질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물어보고, 영어로 답변을 받으면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은진 방금 든 생각인데 챗GPT의 역할이 구글,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과 유사한 것 같아요. 챗GPT에 물어보는 내용은 구글에 물어봐도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우리가 쓰는 검색 엔진 중에 하나가 추가된 느낌만 들어요. 그래서 '구글링'처럼 '챗지피팅'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요.

보은 챗GPT를 쓰며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은진 일을 하며 물어본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동화 작가님 추천해 줘'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에 나오는 작가님은 어떻게 선별되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챗GPT에 원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다 보니,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는지도 의심이 들어요. 특히 챗GPT의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 답변처럼 답변의 신뢰도 문제도 있어요. 특히, 윤리적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하구요.

혜령 챗GPT는 사용자의 답변을 학습하다 보니 IT 회사에서는 사용에 더욱 신중해야 해요. IT 회사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다



대담. 변정우

사진, 영상, 매거진 등 미디어 부분에서 기획과 제작일을 하고 있는 비주얼 스토리텔러. 제품, 인물 스냅 등 개인 사진 작업들과 벅스코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 및 채널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 로컬 매거진 'OFF'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대담. 윤혜령

부산에 있는 IT 회사에서 웹 퍼블리싱과 프론트엔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원. 비전공자이며 지금은 신입사원이다.

보니 챗GPT 사용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등 보안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일본과 미국 회사에서는 챗GPT와 같은 AI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금지시켰다고 하고요. 코드만 검색하더라도 챗GPT에 기록이 남고 학습이 되다 보니 사람의 일을 대체하기도 힘들고 위험할 것 같아요.

정우 챗GPT 기술이 상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기술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지만 개발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항상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노벨은 광부들의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했지만, 전쟁에서 사용되어 많은 사상자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렇듯 챗GPT도 윤리적인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는지 제한을 둘 수 있는 법률들을 만들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제도적 장치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보은 계속해서 챗GPT는 개발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보완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챗GPT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는지 각자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은진 챗GPT가 자기 발언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면 좋겠어요. 사용하다 보면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처럼 사실과 무관한 답변을 열 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챗GPT는 무엇을 안다고 나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지?'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찾아낸 정보인지 출처를 밝히면 신뢰도도 올라가고 답변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이중 작업도 줄어들 것 같아요.

혜령 '구글링'을 여러 번 해도 정보를 찾지 못해 챗GPT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구글링'을 통해 본 정보들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는 이 정보를 어디서 알았을까?' 궁금증이 들었어요. '내가 이미 봤던 것인데, 이걸 어디서 알았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거 같아요.

보은 그렇죠, 기존 정보를 활용하다 보니 정보 제공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걸 다들 느끼는 것 같아요.

지훈 저는 챗GPT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미래에
AI가 상용화되어 '색깔을 섞어줘' 요청할 시간에 제가 직접 섞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챗GPT가 제공하는 정보로 제 삶이 윤택해질
거 같진 않아요.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정보는 들어내고
공신력 있는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정우 개인적으로 챗GPT가 불친절하다고 느꼈어요. 효과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질문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방식들을 친절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술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중요한 건
사람인 만큼 기술을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 동료 그리고 친구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런 역할이 챗GPT 서버에 존재한다면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또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얻을 수 있다'와 같이 정확도 높은 답변을 얻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면 많은 사용자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지만,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고
도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네요. 챗GPT를 통해 도움받은 부분
그리고 불편했던 부분들이 비슷하여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문화예술계에서도 본인의 일과 작업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챗GPT를 활용한다면 재창작의 동기도 생겨날
것 같아요. 특히, 예술인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예술적 시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술 분야가 기술의 발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새로운 예술계의 역사를 쓸 수 있기를 이번 대담을
통해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활용 가능할지 궁금하면서 친절한 톨로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그럼 챗GPT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이지훈

부산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 작가.
실제 존재하는 도시 이미지, 달 그리고
지나가는 비행기 형상을 통해서 동시
대의 모습과 시간성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한다.

신옥진의 그때 그 시절

예술인의 카페, 부산공간화랑

글·사진. 신옥진

부산공간화랑 대표. 서울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활동하다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하고 주변의 권유로 화랑업에 뛰어들었다. 1975년 '부산공간화랑'을 개관하였고, 2009년 심상시잡지 신인상 당선으로 시단에 데뷔하였다. 그리고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장, 부산화랑협회장, 해운대포럼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부산청년미술상>을 제정하여 역량 있는 신진 작가 발굴에도 힘썼으며, 부산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등에 수백여 점의 작품을 기증하며 부산 문화계에 폭넓게 기여했다. 문화훈장 화관장을 수훈했고, 협성문화재단 협성문화상,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공간화랑 다실이 있던 외국서적상 입구길

글이란 쓰여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난다. 뿐만 아니라 50여 년 가까이 지난 일을 억지로 참기를 짜내듯이 아득바득 용을 써서 쓴 글이 무슨 감동이 있겠는가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과연 재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고 청탁을 사양할 궁리만 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좋든 싫든 한번 써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웃 일본과 많은 비교 대상에 오르게 된다. 그것은 항상 일본에 비해 '참고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상황에 많이 부딪혀 왔다는 점이다. 왜 우리는 자료가 빈약한가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준비를 못했나(지난 전란 때문이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온 부분이다. 그래서 몇 자 의미도 없는 글을 써보기로 작정했다. 부산공간화랑은 1975년 4월 1일 광복동 입구 외국서적을 파는 골목에서 서양화 전문 화랑으로서 문을 열었다. 2층이었다. 미술 한 부분일 뿐이라서 전체 부산문화를 조망해 보기에는 왜소하지만 한 부분을 통해서 다른 부분도 약간 스며서 비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해 보았다. 화랑이라는 명칭이긴 하였지만 테이블을 놓고 커피를 파는 사실상 카페식 화랑이었다.



김종식 서양화가와 필자(로댕 다방에서)
_ 허중배 촬영



안창홍 개인전에서 서상환 화가와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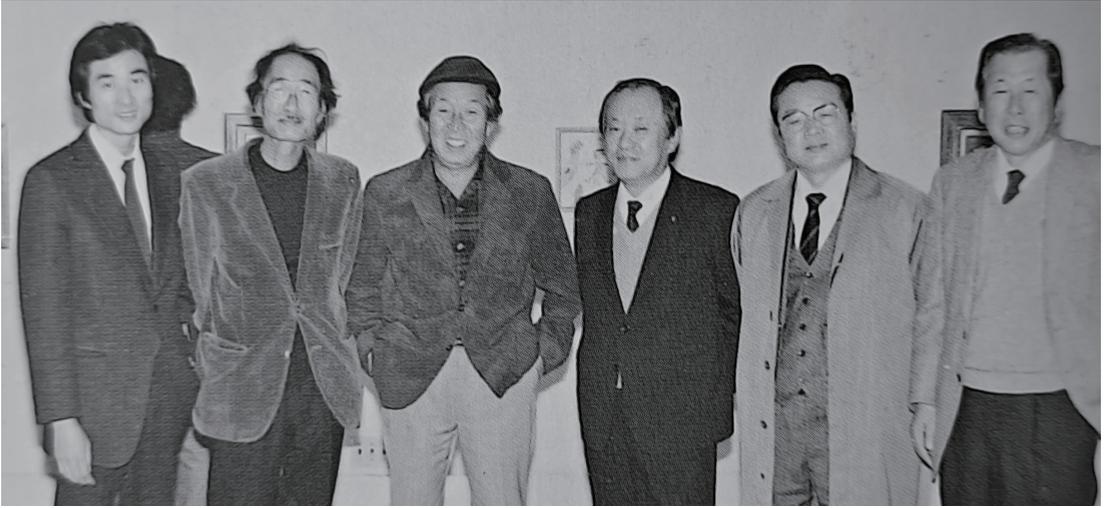
그림이 팔리지 않던 시절이라 운영에 보탬이 될까 해서 차를 팔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차값외상' 때문에 2년 만에 문을 닫아야 하는 불운을 맞았다.

운영을 시작할 때는, 그때만 해도 서울과는 문화적 단절이 심했던 시기여서 가능하면 서울 쪽 화가를 유치해서 부산에 선보이는 쪽을 지향해서 일을 시작하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실천해 나가는 것은 만만찮았다. 장소를 부산에 정하고 왜 부산 작가를 홀대하느냐는 원성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서울 작가 작품을 부산에 전시하는 것은 경비가 과다해서 문제였다. 게다가 서울 작가들은 지방 전시를 꺼려하기까지 했다. 전시 문제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지만 그 와중에도 커피를 찾는 손님들은 늘어나서 아침부터 늘 만석이었다. 하지만 출근하듯 홀을 가득 채운 손님들은 각자가 가방이나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치 '자기 자리'임을 정해놓은 듯 하루 종일 그 테이블에서 손님을 만나고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해서 '고객 순환'이 되지 않았다. 밖에서 보면 늘 만원인데도 내부 경영상으로는 영업 내용이 엉망이었다. 게다가 차값을 모두 외상으로 적어놓고 가기 때문에 현금 구경이 늘 어려웠다.

카페, 화실 공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전국 각지의 소설가, 평론가, 음악가, 무용가 등의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좌석은 늘 번잡했다. 서울서 부산 쪽에 일이 있어서 오는 문화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굳어갔다. 그때는 필자도 젊은 시절이고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화가 이외의 사람들을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과도한 외상값으로 화랑카페는 문을 닫고 다시 화랑만으로 재개관했다. 작가를 만나기 위해 서울을 자주 오르내리는 생활로 변화가 생겼다. 서울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 과정에서 광복동 카페 시절 우리 공간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을 우연한 장소에서 가끔씩 부딪히게 되는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각 분야에서 전국적 문화인사임을 그때서야 알게 되어 깜짝깜짝 놀란 적도 있다. 아무튼 그 당시 공간카페화랑은 수많은 전국적 예술인들의 사랑을 받은 '만남의 장소'였던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 인터넷, 편리한 교통 등 사회적 인프라가 없었던 시절이어서 모든 지방들이 서울과는 단절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때야말로 부산 작가들이 그들의 위치나 작품성이 지금보다 원했던 원치 않았건 간에 훨씬 '부산적'이었던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윤 개인관화전에서 필자와 오윤 관화가



장욱진, 박호석, 황염수, 권옥연 4인 전시회 오픈에서
좌로부터 필자, 장욱진, 박고석 외에 미술품 콜렉터들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1970, 80년대는 부산의 문화권이 더욱 순수하고 부산적이었다는
아이러니가 성립하게 된다. 그런 탓으로 가장 부산적 성격이 강렬했던
시절이라고도 느껴진다. 따라서 오늘날 부산의 정체성을 정의하기가 오히려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다.

지금은 부산 미술의 구심점이었던 1세대 작가였던 김종식, 송혜수, 전혁림
같은 작가들도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시점에서 만일 '부산적 작가의 정체성'을 말하라고 한다면 사실상
어리둥절할 것 같다.

굳이 현재의 부산의 문화를 정의한다면 그것은 '부산 문화의 세계화'가
당겨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극작가 김지훈의 히든플레이스

이르게 온 것들에 대하여



글·사진. 오성은

소설가.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초빙교수. 쓴 책으로 소설집 『되겠다 마음』, 에세이 『속도를 가진 것들은 슬프다』, 『사랑 앞에 두 번 깨어나는』, 『여행의 재료들』, 『바다 소년의 포구 이야기』, EP 앨범 <This is my>, 단편영화 <응시>, <향기>가 있다.

이르게 핀 꽃들을 시샘하는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를 기다리며 저 너머를 살피나갔다. 벗 나무의 분홍 사이로 타워 하나가 뾰족하게 솟아 있었다. 그 너머로 영도의 산등성이가 보였다. 그와는 대칭동 어귀에서 만나기로 정해둔 터였다.

“형.”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내가 잊고 있었던 한 시절이 떠올라 아득해졌다. 인터뷰를 명목으로 만나는 자리였지만, 그도 나도 이 만남에 조금 다른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는 부산 연극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주역이기 이전에 굳이 세어보지 않아도 나와 가장 많은 술병을 비운 동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도 나도 세상살이를 핑계로 한동안 만나지 못했을뿐더러 안부를 묻는 일도 뜸해지고 있었다.

“일찍 왔네요.”

처음의 목소리가 나를 상념에서 돌아 나오게 했다.

“요즘 잘 못 먹죠? 입맛이라도 돋우시라고.”

그는 무심하게 종이가방 하나를 내밀었다.

“파김치랑 콩잎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시골에서 직접 재배한 거라 맛은 괜찮을 거예요.”

그는 늘 이런 식이었다. 오래전부터 그랬다. 종종 쌀을 보내주거나, 김치를 보내기도 했다. 귀한 음식을 받아먹고서도 어물쩍 넘긴 일이 여러 번이었다. 그가 나의 식탁 사정을 걱정하는 까닭은 지난 2월, 주수를 못 채우고 이르게 태어난 딸애가 여태 고초를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종이가방의 묵직함을 뒤로 하고, 그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왔구나.”

우리는 서로가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하던 즈음부터 글공부를 함께했던 사이였다. 수염이 덩수룩하게 나 있지만, 뜨거운 문청이 거기 안에 있다는 걸 나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의 눈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을까.

“지훈아.”

나는 그의 이름을 오랜만에 불러보았다.

원래는 민주공원을 돌아본 후에 보수동에서 밥을 먹을 계획이었다. 그가 학창 시절에 첫 연출을 맡은 작품을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공연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김동리의 단편소설을 바탕으로 재창작한 <밀다윈> 역시 그곳에서 공연했다. 그러나 갑작스레 마음이 바뀌었다며 동광동과 중앙동 일대로 나가보자고 했다. 연극에 대해 떠올리자니 술이 생각나서였다.

“다시 술 마셔?”

나는 그가 술을 잠시 중단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술만 마시면 체내에 염증 수치가 높아져 거의 일 년째 고생하고 있었다.

“아니요. 연극 한답시고 기웃거렸던 술집들이 다 거기에 있어서요. 지나다니면서 입맛이라도 다셔볼라고.”

그러나 나는 그가 여차하면 내게 한잔하자고 말할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다. 술이 빠지면 섭섭해서라기보단 술이 없으면 안 나오는 애기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치나 사상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 사이에서도 연극이니 문학이니 하는 이야기는 감춘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더 귀한 자리이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그를 인터뷰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그는 장난인 줄 알았다고, 술이나 마시자는 애긴 줄 알았다고 이실직고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한 뒤로는 표정이 사뭇 달라져 있었다. 한 번도 나는 적은 없었지만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들이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연극이란 무엇인지 처음으로 물을 작정이었다.

구미에서 자라 부산의 한 대학에 입학한 그는 석사와 박사를 거쳐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가는 작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작품을 빠짐없이 다 본 관객으로서 늘 다음 작품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2012년 <여인화>의 각색을 시작으로 연극에 발을 디뎠다. 이후 정식 입봉작이라 할 수 있는 <달은 놀여기 있다>(2013)의 희곡을 써내며 극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시절 기웃거렸던 술집들이 죄다 40계단 인근이었다.

“처음 부산에서 연극을 본 게 가마골인 것 같은데, 형도 기억하죠? 바로 이 근처였잖아요. 공교롭게도 밀다원 다방이 있었던 곳도 근방이고. 제가 <밀다원>(2021) 쓰면서 이 동네를 제대로 살펴보니 나만 매력적이라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사가 깊더라고요. 피란 시절에 몰려온 예술가들이 모여서 다방에 가고, 술 마시러 가고, 시 낭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 힘든 시절에도 예술은 안 놓고 살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여기 정착하게 된 게 다 이유가 있는가 봐요. 뭐 이전 이 좁은 부산에서도 뽕뽕이 흩어지고, 예술이 분산되다 보니 집중도가 좀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의 눈이 번득였다.

“저기가 옛날 연습실이 있던 자리데.”

뻑뻑한 건물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서 걸어 나오자마자 술 마시러 가는 거죠. 낮에는 연습하고, 밤에는 술 마시고 뭐 그렇게 살았네요. 그때 너무 많이 마셨어.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인가.”

그가 씩씩하게 입맛을 다셨다. 그렇게 연극을 시작하게 된 한 문학청년이 이제는 어엿한 극작가라 불리게 되었으니 객기로 강단으로 버텨낸 그가 내심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그 시절을 돌아보면 막막한 현실이 목을 죄었을 것이다. 그는 냉혹한 연극계의 현실을 깨닫고 방송국의 라디오 작가로 취직해 생업에 종사하게 된다. 그가 부산을 떠나던 때, 그리고 내가 외국으로 홀연히 떠나버릴 무렵 우리는 밤을 새워 술을 마셨고 게워 내고 또 마셨다. 알 수 없는 상실감을 오롯이 감당해야 할 서른 즈음의 날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연극으로 돌아온다.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극작가로 참여한 두 번째 창작품 <귀가>(2019)를 통해 부산연극제 희곡상을 거머쥘다. 그가 안톤 채흠의 <애수>(2020)를 각색한 작품을 본 나로서는 <귀가> 역시 전통적인 서정을 획득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의 이전 작품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삶의 진실들이 대사로 확장되어 객석에 앉은 나를 괴롭혔다. 노년의 삶에 대한 정확한 시선이 녹아 있는 <귀가>는 대사의 호흡만으로 관객을 아프게 찌를 수 있는 무서운 작품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가족에 대한 주제를 길게 이어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목탁 소리를 생의 그늘로 생경하게 만들어내는 <탁탁탁>(2021)에 이어 노작홍사용 창작단막극제 본선 진출작 <아빠는 순찰 중>(2021)까지 가족에 대한 보편적 관점을 그만의 시각으로 뒤집어버린 개성 있는 이야기들을 내어놓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아빠는 순찰 중>의 부산 공연을 직접 연출하기까지 한다. <귀가>, <탁탁탁>, <아빠는 순찰 중>은 그의 가족 3부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놀라운 지점은 여기에서부터다. 그간 독심 있게 써낸 주제에 대한 근력도 대단하지만, 자신이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남성 주인공들이 비루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새로운 도전을 열어내는 게 아닌가. 그 작품이 바로 <지상의 지난 밤>이다. 엄마와 딸이라는 단순한 인물 구조에 더해 부조리한 대화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으로 2022년 김문홍 희곡상을 수상한다. 돌아온 탕자가 5년 만에 이뤄낸 쾌거인 셈이다.

“비로소 구라가 좀 늘었다고 할까요?”

그러나 그는 아직 머리를 긁적이며 ‘아씨, 무얼 써야 좋을까.’라고 툭툭거리는 귀여운 후배이기도 했다.

“사실 이 질문하려고 만나자고 한 건데, 김지훈 작가는 극작가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연극이란 뭐라고 생각해?”

한참 고민에 잠겨있던 그가 안경테를 슬쩍 올리며 말했다.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게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영화니 메타버스니 하는 것들이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같은데, 연극은 그래도 연극이잖아요. 더 이상 안 좋아질 게 없는 장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희망적인 생각을 하던 시절을 지나와선 이제 더는 안 좋아질 게 없는 상태에 이르니 차라리 나은 거죠. 연극을 하면 연극 한다고 힘든데, 이상하게 또 연극 덕분에 위로를 받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얼른 주워 담는다. 연극을 하면 한다고 힘든데, 이상하게도 또 연극 덕분에…….

“연극은 다른 장르와 다르게 현장에서 바로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소설을 쓰고, 시를 써도 독자의 표정을 살피기란 쉽지 않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연극은 달라요. 관객들의 표정을 보면. 내가 그래서 이 미친 짓을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관객. 그렇다. 그와 내가 문학에 빠져든 계기도 바로 그것이었다. 문학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되레 나를 향한 위로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는 내게 부산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짬뽕이라며 헌책방 거리 건너편에 있는 부평동의 한 중식당으로 데려갔다. 玉生館(옥생관)의 간판에는 1951년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었다. 그는 종종 이 식당을 찾아 짬뽕 한 그릇을 먹고 돌아간다고 했다. 나는 풍요로운 해산물이 만들어낸 칼칼한 국물을 남김없이 다 마시고 말한다.

“오늘 확 술이나 한잔할까요?”

결국 그 말을 내뱉고야 만다. 그러나 그도 나도 오늘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각자 보살펴야 할 아픈 몸과 아픈 가족이 있다.

우리 거친 바람을 마주하며 처음 만났던 거리로 되돌아갔다. 거기에는 봄꽃이 매서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김지훈의 연극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니, 어느 예술가라 해도 완숙한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풍파를 겪어야만 하는 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던가. 무엇 하나 쉽게 이룰 수 있는 건 없다. 한 예술가가 만개하기까지의 세월을, 그 고통의 흔적을 지금의 나로서는 감히 짐작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는 노장이 된 뒤라 해도 객석에 앉아 있는 이들의 표정을 면밀히 살필 거라는 사실이다.

“형, 힘내요. 다음에는 꼭 한잔하죠, 뭐.”

나는 이르게 온 것들에 대하여 생각한다. 이르게 온 것들이 어떻게 피어나고 어떤 시련을 겪어 내일로 도약하는지를. 바람은 여전히 사방에서 불어오지만 나는 두 다리에 힘을 잔뜩 준 채로 버티고 서 있다. 이 길 위에 적어도 혼자만 아니라는 걸 새삼 알게 된다. 꽃잎이 이르게 날리고 있는 초봄의 어느 날이다.

대담. 김지훈

극작가. 무대에 올라간 작품으로는 <귀가>, <택틱>, <아빠는 순찰 중> 등이 있다. 제37회 부산연극제 희곡상, 제12회 김문홍 희곡상을 수상했다.



오래-감만

최근 세계 유명 도시의 그림지도를 통해 그 시대의 도시와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도시의 만화경』(손세관 지음)을 흥미롭게 읽으며 지난 감만동 그림지도 작업을 자주 떠올린다. 도시 그림을 그리는 나에게 처음 그림지도 작업을 시도하게 한 감만동 리서치 프로젝트. 2018년 봄부터 여름까지 지도 한 장을 손에 들고 구슬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감만동 골목골목을 걸었던 기억이 난다. 1,000여 장이 넘는 사진을 찍고 11장의 부분 스케치를 짜집기하여 감만동을 하나의 그림지도로 완성한 작업이었다.

드론도 구글 지도도 없던 시절, 높은 종탑을 수없이 오르며 수 년 동안 도시를 그렸던 노력과 정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상을 담은 그림지도를 보며 자연스럽게 감만동이 떠오르는 건 분명 작업 과정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일 거다. 나는 감만동이 한눈에 보이게끔 부감 시점을 잡아 큰 줄기의 길을 먼저 표현하고 학교나 교회, 시장, 아파트와 같은 공공장소는 세부적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연필 스케치가 보이도록 물감을 얇게 채색함으로써 감만동 동네가 가진 소박하고도 은은한 느낌을 살리고자 했다. 그렇게 그림지도를 그리면서 감만동은 나에게 애뜻한 동네가 되었다.

지면에 실린 <감만시장>은 전체 지도를 그리기 전 표현기법 연습을 위해 그린 부분 지도이다. 지도의 오른쪽 아래 개교 100주년 역사를 자랑하는 동향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큰길을 따라 농협과 버스 차고지, 한의원 등 상가가 줄지어 있으며 한 블록 뒤로는 붉은 차양으로 연결된 시장이 보인다. 조용하고 한적한 감만동에서 가장 변화한 골목이며 주민들이 채소와 과일 등을 사고파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시장 골목을 벗어나 큰길을 따라 오르막을 오른다. 오래된 주택과 아파트로 이루어진 주거지에 간간히 슈퍼와 목욕탕이 보인다. 그리고 군데군데 빈집과 공터도 있다. 오르막 끝에 서면 촘촘히 겹친 집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멀리 푸른 바다, 부산항대교, 용두산공원, 영도까지 훤히 보인다.

지도를 그린 지 벌써 5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감만동의 풍경도 조금씩 변화되었고 이제는 희미해지려 한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도시가 그랬듯 미래에는 지금의 감만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도시의 만화경』을 읽으며 그림지도에서 옛 도시의 건축과 문화, 사람들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흥미로웠고, 또 상상력을 자극했듯이 한 시절의 아름다웠던 감만동을 보여주는 그림이 오래 곁에 남아 많은 사람들이 감만동 그 시절을 추억하고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다.

글·그림 김민정

회화작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개발로 인해 순식간에 변화하는 일상의 단면을 수채화, 유화로 그려내어 쉽게 사라져가는 기억과 풍경을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부산 매곡지 마을, 감만동, 영도 봉산마을, 온천1동 등 오래된 집과 골목을 걷고 그렸다.



김민정, <감만시정>, 2018, 종이에 수채, 41×31cm

진화하는 춤꾼 허경미



허경미, <감만기억> 파트1. 골목 투어 공연, 2018, 멀티미디어 창작단체 <진홍스튜디오> 홍석진 감독과 협업한 프로젝트
_ 박병민 촬영

글. 조봉권

국제신문 부국장 겸 문화라이프 부장. 부산대 사회복지학과와 부산대 예술문화와 영상매체협동과정 미학과정에서 공부하였다. 1995년 국제신문에 입사해 문화부기자, 문화부장, 문화전문기자 등 문화·예술 부문을 많이 취재하였으며 선임기자, 편집부국장 등을 지냈다. 현재 인문 무크지 '아크' 편집위원도 역임하고 있다.

이 인터뷰는 부산의 중견 예술가이며 탁월한 춤꾼·안무가인 허경미무용단 무무의 허경미 대표를 만나 나누는 대화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수다(Chat)’라는 이 꼭지의 기획의도에 맞춰 대화체로 구성하였습니다. ‘대화성’, ‘수다스러움’을 강조하느라 허경미 대표에 관한 공식 자료나 기록을 따로이 상세히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늘 진화하는, 한국의 중요한 춤 예술가입니다.

봉권 이번 호는 챗(Chat), 그 자체가 주제라고 하더라고요. ‘수다’를 떨다 할 때의 그 영어단어 chat, Chat GPT 할 때 그 chat. 편하게 걸림 없이 채팅할 때의 그 chat. 수다 떨듯이 격의 없이 대화하면서 예술가 내면의 결을 끄집어내서 독자 앞에 펼쳐 보여 달라는 의도 같았어요.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김지혜 담당이 꼭 그렇게 써달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인터뷰를 위한 자료 검색이나 예상 질문 만들기 같은 준비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가 춤 담당 기사를 처음 맡았던 때가 2000년 10월이었거든요. 그때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이던 경미 씨를 만났으니 우리는 벌써 23년 친구인 거잖아. 비록 요 몇 년 사이엔 자주 뵈지 못했지만, 한동안 경미 씨와 저는 얼마나 치열하게 춤 예술에 관해 이야기했던가요. 춤 공연장에서도 참 자주 만났죠. 그 사이 경미 씨는 부산 춤 예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이 되었죠. 아! 별 준비 안 하고 현장에서 딱 만나서 수다떨어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경미 ‘춤 수다’라니 참 좋네요. 2000년대 초, 제가 부산시립무용단에 있을 때 <눈물>이라는 솔로 공연을 준비하던 때가 기억나요.

봉권 <눈물>은 정말 좋은 작품이죠. 다섯 편이 됐든 열 편이 됐든, 저보고 가장 강렬한 에너지를 느끼고 깊은 인상을 받은 춤 공연을 꼽으라고 한다면, 경미 씨가 안무하고 홀로 춤춘 <눈물>과 <진화>는 꼭 넣게 될 듯해요. 삶의 구체성(당시 많은 춤 작품은 대체로 이 삶의 구체성을 잘 드러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의 힘이 강하지 못했어), 그걸 빨래를 짜듯 꼭 농축한 데서 오는 추상의 아름다움과 서정성, 춤꾼의 기예와 표정이… 굉장했죠.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춤 작품으로 저는 기억해요.

경미 (쑥스러운 듯 웃는다) 그 공연을 만드느라고 백방으로 뛰었는데 제작비가 모자랐어요. 그런 사정을 어찌어찌 아셨는지 조 기자(봉권)께서 이러저러 궁리하다가 결국엔 사비로 후원금을 주신 적이 있죠. 그게 잊히지 않네요. 본인이 취재하는 예술 장르를 사랑한 거죠?



_ 김재경 촬영

봉권 (쑥스러운 듯 웃는다) 20년 전이네요. 말씀하시니 떠오르네요. 그땐 신문사 문화부란 델 처음 왔으니 열정이 넘쳤던 듯해요. 오만 춤 공연 뒤풀이다 가고 문학 행사 현장은 모두 뛰어다니고... 예술과 언론의 경계 같은 건 생각 못 했고, '운동'하듯이...

좋아요. 그럼 춤꾼 허경미의 출발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제 기억엔 '센터'에도 자주 썼고 주역도 많이 맡으면서 두각을 드러냈어요.

경미 부산대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마치 정해진 순서인 것처럼 시립무용단에 들어갔죠. 이노연 선생님께서 안무자로 계실 때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어린 단원이었는데도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기억해요. 근데 돌아켜보니, 내 모자람을 자꾸 확인한 시간이었어요.

봉권 ? (나는 '시립의 스타'로 기억하는데?)

경미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제가 춤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란 걸 느꼈어요. 춤 순서를 몸에 빨리 능숙하게 익히거나 군무에 스미는 일이 어렵더라고요. 칼군무도 잘 안 되고, 주역을 맡고 나면 성취감을 느끼기보다 더 주눅이 들었죠.

봉권 창의성이 풍부하고 자기 세계를 표현하고 싶어 하며 예술가 기질이 강했던 춤꾼으로만 여겼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건 몰랐네요.

경미 그와 비슷한 성향이 있었던 듯해요. 그리고 제 모자람을 극복해보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잘 안 풀리고, 아시다시피 무용단에 있으면서도 제 작품을 하려는 열망이 제게는 많았잖아요. 이렇다면 시립무용단에 있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봉권 그래서 인도로 가서 2년 동안 춤과 요가를 익혔나요?

경미 이걸 정말 아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인도로 갈 때 제가 과감하고 결연하게 시립무용단 단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짐작하시는 분이 꽤 계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엄청 즐겼어요. 춤추는 이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시립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만둘 수 있겠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컸고요. 그래서 장기 휴직 제도를 이용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제도가 제자리를 잡지는 못해서, 허용되는 기간이 짧았어요. 2년째로 넘어갈 즈음에 시립무용단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통지가 왔고 저는 1년 더 인도에 있는 길을 택했죠. 무용단은 그만뒀죠.

봉권 그때 통영에 사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경미 어머니가 통영의 조선소에 취직하셨다고 기분이 좋아 자랑하시는 통화를 한 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조선소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통영의 우리집에서 보면 보이는 조선소였어요. 급히 한국으로 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봉권 ...

경미 아버지가 그 뒤로 많이 아프셨고, 아파하셨어요. 2년 전에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통영에서 참 열심히 살아가신 분들이고... 여튼 꿈꾼 것 같고... (인터뷰는 멈췄다)

봉권 미안합니다.

경미 인도에서는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의 사설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인도에는 예술대학 같은 기관이 아주 드물거든요. 거기서 내 작품 '진화'를 만나기도 했고, 인도라는 곳에서 얻은 나름의 깨달음과 배움을 얻어서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봉권 인도에서 부산으로 돌아온 뒤로는 어땠나요? 얼마 전에는 한국춤비평가협회가 수여하는 2022 춤비평가상을 받았어요. 깐깐한 비평가들이 한 해 동안 펼쳐진 한국의 춤 공연을 꼼꼼히 살핀 뒤 선정하는 이 상은 권위가 높습니다. 2005년 인도로 떠났고 2년 뒤 부산으로 돌아와 예술가로 치열하게 살았다는 증표가 아닐까 싶어요.

경미 그 상은 '베스트 6'을 뽑았는데, 저는 <진화>로 수상했어요. 상 받은 작품 가운데 유일한 거리 춤이어서 뜻깊다는 생각은 합니다. 지난해 10월 부산시민공원에서 공연했어요. 아시죠. 인도 까딱 댄스에서 활용하는 방울을 발에 달고 객석을 등지고 나아가는 몸짓이요.

봉권 그럼요. 2007년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초연했을 때 보고 천동을 맞은 느낌을 받았죠. 그 뒤로도 <진화>는 계속 진화했구요.

경미 그간에는 영상예술가 홍석진 감독과 함께 미디어 아트 계열로 볼 수 있는 작품 활동을 많이 했고요. 커뮤니티 댄스 활동 쪽으로도 영역을 넓혀갔죠. 지금은 장애가 있는 분들과 함께 춤을 만들고 추는 활동에서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통 춤인 승전무를 이수했고 예술강사로도 활동합니다.

봉권 춤을 중심에 놓고 더 많은 시민과 만나는 방향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온 점이 참 인상 깊어요.

경미 미디어 아트는 도심 야외 공간에서, 제 몸이 스크린이 되어, 영상을 비추고, 저는 춤추는 형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론 더 다채로운 작품을 했고요. 커뮤니티 댄스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요. 감만동, 영도 등지의 어르신들과 함께한 작품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할머니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함께 춤을 짜고 공연까지 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의 지원도 받았습시다. 감만동 프로젝트의 경우는 그 결과물을 책으로 엮었는데, 출연한 한 감만동 할머니께서 책을 쥐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도 되겠구나.” 재개발로 이 동네가 곧 사라진다 해도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살아낸 감만동의 삶이 여기 담겼다. 이렇게 인정받아 남게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참 감동이 컸습니다.

봉권 그리고 ‘도로시’가 있죠.

경미 장애가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춤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3년 단위로 진행했는데, 그 지원 기간이 끝났지만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간 이분들 그리고 보호자들과 쌓아 올린 성과가 아깝기도 하고 보람도 참 컸거든요. 장애가 있는 분, 보호자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예술가 강사들이 큰 변화를 겪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전국 공모 경연에 나가 상도 받았는데 그때 부산문화재단 구성원들이 함께 서울로 가서 많이 챙겨주고 축하해주셨죠. 장애가 있는 참가자와 이야기하던 중에 물었죠. 수업하러 올 때 어떤 기분이냐고. 그분 말씀이 자동차에 타고 ‘노란 선’을 보고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노란 선이란 도로에 그어진 선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동이 힘든 이분들에게 좋은 의미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무브먼트, 댄스, 프로젝트 같은 낱말을 넣어서 ‘도로시 댄스 프로젝트’로 이름 지었습니다. 이 인터뷰 마치고 바로 도로시 수업을 하러 가야 해요.

봉권 경미 씨는 날마다 진화하는군요.



허경미, <진화>, 2018, 부산국제공연예술제 초청
_ 박병민 촬영

대담. 허경미

허경미무용단-무무 대표. 한국무용을 베이스로 주요무형문화재 승전무를 이수하고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전형적인 무대공연뿐 아니라 다원성을 띤 작업과 교육으로 그 활동 영역을 다채롭게 넓혀가고 있다.

영주동에서 우리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주동은, 그냥 지나가는 동네에 불과한 것 같아요. 부산역 바로 옆에서 사하구를 간다거나 김해로 넘어간다거나 할 때 지나는 언덕길이지요.”

영주동에서 활동하는 청년기획자 정하연 씨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다. 부산살이 10년 차인 나에게 영주동은 확실히 낯선 동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언젠가 내가 무심히 ‘획’ 지나쳐버렸을 차창 밖 풍경, 그 언덕 위에선, 골목골목마다 정겨운 이야기가 넘쳐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따사로운 4월, 민주공원의 겹벚꽃만을 떠올린 당신이라면 이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영주동의 봄을 일궈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글: 김미양

에세이집 『입가에 어둠이 새겨질 때』를 출간한 작가이자 '지역과 부엌 사이' 대표. 하지만 실상은 아직 백지가 두렵기만 한 초보 글쟁이이자 소심한 문화기획자. 지역과 음식, 추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연결하는 작업을 조금씩 시도하며 성장하는 중이다.

“배운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기쁨입니다.”

해가 뜨면 가고 싶은 배움 공동체 영주학당 이홍식 어르신



이홍식 어르신_ 박보은 촬영

해가 뜨면 영주학당 가고 싶어 하구요
우리는 함께 모여 사랑으로 배운다
너랑 나랑 우리 모두 두둥실
재미나는 영주학당 참 배움이로구나
- 영주학당 교가

화요일 11시, 영주터널 뒷길에 위치한 '고맙습니다 글마루작은도서관' 2층에서 뜬금없이 교가가 울려 퍼진다. 제주 민요 '너영나영'의 가락에 새로운 노랫말을 붙여 완성한 교가다. 박수를 치면서 한목소리로 노래하는 학생은 모두 이 마을의 어르신들. 봄 소풍을 나온 것 마냥 표정이 밝다. 교가를 부른 후에 본격적으로 1교시 만들기 수업이 시작되었다.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종이컵 하나를 잠시 만지작거렸더니 해바라기 모양 액자가 똑딱 만들어진다.

“여기에 사진 끼워가 식탁에 딱 올려놓으면 되겠네.”

“선생님, 내는 이거 틀리게 한 것 같다.”

“야 니 그렇게 해가 손자들 가르쳐줄 수 있겠나.”

가위로 오리고 칼로 자르고 사인펜으로 칠하고, 두 손이 바빠 움직이는 와중에도 두런두런 이야기와 함께 웃음이 터져 나온다.

그중 유난히 분주한 한 학생이 있다. 색연필이면 색연필, 사인펜이면 사인펜,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 순간이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납장으로 달려간다. 자신의 몫은 제쳐 두고 반 친구들의 학용품부터 챙기는 백발의 반장, 바로 올해 팔순을 맞은 이홍식 어른신이다.

영주학당은 올해로 4년째 운영 중인 공부 모임이다. 최매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어른들이 함께 시를 쓰고 인생 이야기를 나눈다. 이홍식 어른신의 ‘반장작’도 4년째로, 영주학당의 탄생부터 그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처음엔 중구청의 지원을 받아 노인회관 지하에서 시작했으나, 현재는 지원이 종료되어 구성원들끼리 힘을 합쳐 자생적으로 모임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한다. 어른신들의 학구열과 영주학당을 향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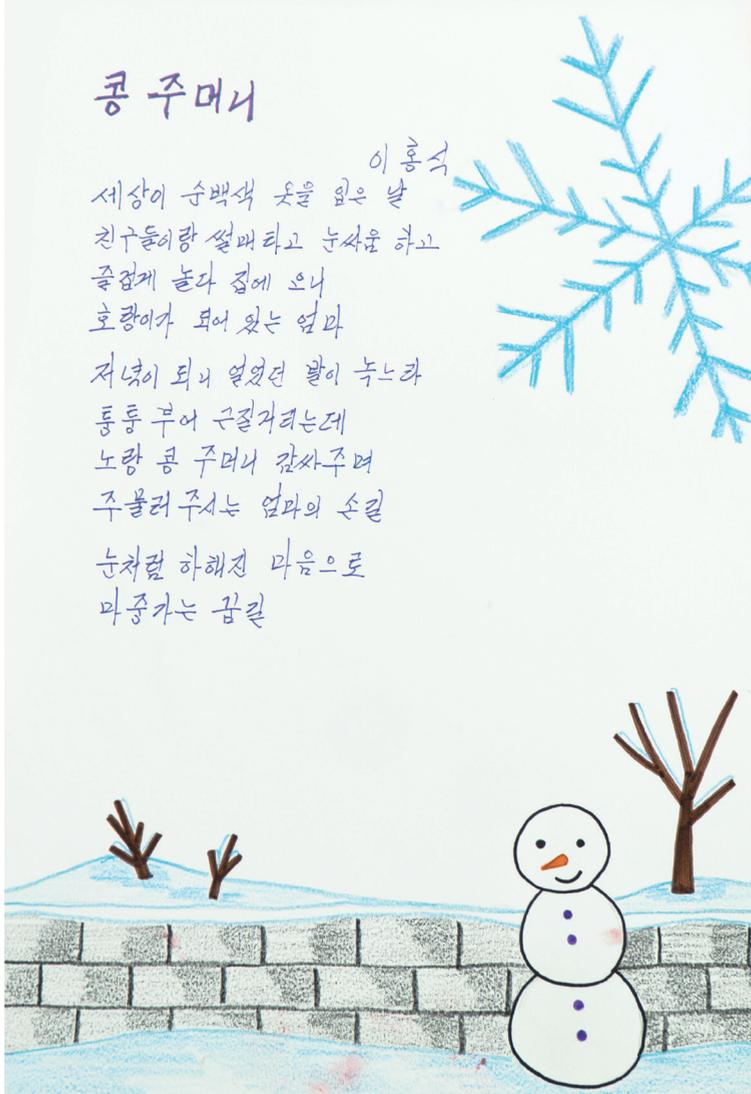
작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모아 『소풍 왔다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발간했다.

“처음부터 시를 쓴 건 아니에요. 글을 배우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죠.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 일 떠올리면 자꾸 슬픈 거, 서러운 거만 생각이 나요. 글을 발표하면서 속마음 털어놓고 같이 울고 그러다 보니, 하루는 최매실 선생님이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 눈싸움하고 놀던 생각이 났어요. 한참을 놀다 발이 얼어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한테 호되게 혼이 났었죠. 근데 그렇게 무서웠던 어머니가 제가 잠든 밤중에 콩 주머니를 데워가지고 제 발을 한참을 주물러주시더라고요. 언 발이 녹으라고. 그 기억이 떠올라서 첫 시를 쓰게 됐어요. 그게 제목이 ‘콩 주머니’예요.”

첫 시의 탄생 배경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따뜻하고 포근한 기억이다. 『소풍 왔다 가는 길』에 실린 시 한 편 한 편마다, 행 사이사이마다, 어른신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앞으로 발표될 어른신들의 시마저 기다려진다.

그러나 이홍식 어른신에게 거창한 포부는 없다. 다만 이 영주학당이 계속되기를, 여건이 개선되어 더 많은 학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실 뿐이다.

“지금 80 넘은 사람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우리가 같이 배우는 이러한 참 배움을, 꾸준히 이끌어나가고 싶은 게 저한테는 꿈입니다. 내가 혹여 아프더라도 지금의 이 행복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참 배움을 계속하고 싶지요.”



대담: 이홍식

4년째 영주학당의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같이 모여 활동하는 친구들과 함께 시집 『소풍 왔다 가는 길』을 발간했다.

“똑똑똑- 어르신, 안녕하세요?”

연결을 위한 작은 두드림 청년문화로협동조합 정하연 이사



대담. 정하연

커뮤니티디자이너, 청년문화로협동조합 이사. 지역에서 공동체, 청년, 행정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영주동에서 영주세탁소를 운영하며 지역에서 공간과 커뮤니티가 가진 힘을 느꼈고, 하이얼플레이스라는 팀을 구성하여 중구에서 '하이앤드하우스'라는 공간 오픈을 앞두고 있다.

정하연 씨를 처음 만난 건 작년 여름 영도에서였다. 당시 아카이빙 사업 진행을 위해 전단지를 한 아름 안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프로젝트 취지를 설명하던 그녀의 모습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한여름 띄약벌 밑에서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명랑하게 ‘어르신~’을 외치던 그녀. 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영주동에서 커뮤니티 기획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녀가 대표를 맡고 있던 청년문화로협동조합이 2021년 부산문화재단 ‘원도심 빈집활용 청년마을 놀이터 사업’에 선정된 것이 계기였다. 그녀는 영주동의 ‘공동생활홈’ 3층에 입주하여 ‘영주세탁소’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다. 이름은 영주세탁소지만 세탁기는 없다. 대신, 과거 세탁소나 구멍가게가 그랬듯이 주민들이 오며 가며 들 수 있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수행한다. ‘동네친구 일촌맺기’, ‘세탁소에서 그린 스무살 독립일기’ 등의 마을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심리프로그램 등도 진행했다.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히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집집마다 찾아가셨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렸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이런 거 하는데요, 한번 오시겠어요?’ 하고요.”

처음엔 낯선 청년의 방문을 경계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매개로 점차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다. 스마트폰 교육 등 마을 주민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며 관계는 더 돈독해졌다. 주민 공동체와의 협업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성과는 분명 청년들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영주1동 원로의집 회장님 도움이 컸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흔쾌히 도와주셨죠.”

정하연 씨의 소개로 원로의집 회장 정수웅 어르신을 찾아뵙고, 마을에서 활동하려는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여쭙었다.

“그저 서로 위로하면서 잘 지냈으면. 노인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라 생각하고 가깝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카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어르신의 말씀은 긴 여운을 남겼다. 똑똑똑, 낯선 청년의 용기 있는 두드림이 어떤 어르신들께는 온기로 다가갔을 것이고, 이는 곧 마을 전체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문화예술의 성과는 객관적 수치로 환산하기 힘들죠. 하지만 저는 문화예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을 주민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힘이지요.”

정하연 씨는 언젠가 ‘마을호텔’을 운영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직은 먼 미래의 꿈이라며 수줍게 웃었지만, 나는 그날의 풍경이 벌써 머릿속에 그려진다. 영주동 언덕배기에 자리한 마을호텔. 그 안에서는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숙박객과 마을 주민 너나할 것 없이 정답게 웃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게 될 것이다.

<부산의 책>을 만날 수 있는 곳



글. 하은지

대학에서 지역학을 전공했다. 방송구성작가, 문화기획자, 출판편집자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쳐 지금은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에서 인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사진. 부산근현대역사관 제공

부산시는 근대 시기의 부산 이야기를 보여주는 '옛 부산근대역사관'을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으로 새 단장하여 지난 3월 1일(수) 개관했다.

부산시는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옛 부산근대역사관을 연계 리모델링하여 부산근현대역사관을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인 역사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문화재 수리 건축공사 착공 이후 기둥과 보 일부에 균열이 발견되어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로 완공이 늦춰져, 별관이 먼저 개관하게 되었다.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인 옛 부산근대역사관은 1929년 건립된 서구 양식의 근대건축물로,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해방 이후 약 50년간 부산 미국문화원으로 운영된 부산 근현대사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부산시는 1999년 대한민국으로 반환되어 부산근대역사관으로 활용되어온 이곳을 2017년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함께 박물관으로 조성하기로 하였고, 2020년 3월 옛 부산근대역사관 내부 리모델링에 착수, 2022년 12월 말 공간 조성을 완료하였다.

1929년 건축 당시 건물의 구조를 보여주고자 천장 마감재로 인해 층고가 낮았던 2층이 노출 천장으로 바뀌었고, 대형 원형 기둥을 따라 2층 슬래브의 일부를 철거하고 개방감을 주어 옛 부산근대역사관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인다.

별관은 '도서관과 기록관, 전시관'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 인문·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1층에는 1만여 권의 소장 도서 및 아카이브 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2층에는 별관 건물의 역사와 건물의 구조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소규모 전시관을 조성하여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휴게 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에서 시민이 편히 찾을 수 있도록 건물의 창호 형태를 본뜬 이색적인 형태의 좌석과 도서 열람 공간, 어린이 도서 열람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지식이 지혜가 되는 서고'이자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공간'을 주제로 북큐레이션 전시, 다양한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및 공연·체험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별관에서는 2월 17일(금)부터 선보이고 있는 개관 기념 북큐레이션 전시 <부산의 책 - 시대의 감정, 지역의 얼굴>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1950년대 한국전쟁기 부산에서 출판되거나, 부산을 다룬 희귀한 단행본과 잡지 등 40여 권을 선보인다. 대표 자료로는 부산문인 김말봉의 장편소설 『화려한 지옥』, 조병화의 시집 『패각의 침실』, 1954년 창간한 우리나라 최장수 문예지 『현대문학』 등이 있다.(2023년 2월 17일(금)~6월 15일(목),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1층 특별서가)

전시 자료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책은 1954년 창간한 『현대문학』이다. 2023년 2월 현재 818호를 발행한 『현대문학』은 1955년 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단 한 번의 휴간 없이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장수 문예지’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1955년 4월호에는 피란문단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소설가 김동리의 『밀다원 시대』가 실려 있다. 작품 제목이자, 오갈 데 없는 문인·예술가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피난처 구실을 한 ‘밀다원’은 실제 부산 원도심에 존재했던 다방으로, 한국전쟁기 부산 원도심의 풍경과 문화지형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상징적 공간이다.

20세기에는 ‘피란 시대’로 통용되던 밀다원 시대를 다른 의미로 해석한 공간이 있다. 바로 3월 1일, 별관과 같은 날 개관하는 부산 중구 보수동의 ‘아테네학당’(대표 김대권)이다. 운영 주체가 공공과 민간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두 공간 모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테네학당은 책 형태의 건물 외관으로 시선을 끈다. 오피스텔이 세워질 예정이었던 이 공간은 어린 시절부터 철학과 문학을 좋아했던 김대권 대표의 결심으로 문화공간이 되었다. 오피스텔이 들어섰다면 철거될 운명에 처했을 책방 세 곳을 1층 공간에 두고, 2~4층을 카페 및 인문 공간으로 조성·운영한다.

특히 아테네학당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밀다원'이다. 1950년대 밀다원과 더불어 원도심의 다방과 카페 등의 공간을 통해 당대 새로운 문화·예술이 싹틀 수 있었듯이, 문인과 예술가가 자유롭게 드나들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김대권 대표는 “누구든지 모여 철학과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 곳곳에 크고 작은 모임방을 만들었고, 앞으로 작가와 예술가를 이 공간으로 불러 모을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역사를 되새기고 문화적 감성을 불러일으킬 시그니처 메뉴(밀다원 커피)와 기념상품 등도 선보여 많은 사람이 보수동책방골목을 비롯한 부산 원도심 일원에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시민과 부산을 찾는 여행자에게 몸의 휴식과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공간이 궁극하다면 이번 주말, 원도심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문화예술교육, AI에게 물었더니

이 글은 챗GPT와의 대화처럼 원고 형식을 가상으로
재구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글: 최윤진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평소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하고 등단한 아동문학가다. 카피라이터로 갈팡질팡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지금은 재단에서 10여 년간 문화행정 일을 하고 있다.

원고 청탁을 받고 호기심이 생겨 PC 앞에 앉았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에게 우리 문화교육팀의 올해 사업계획에 관한 소개글을 부탁해 보았다. 다음은 그 대화 내용을 정리한 글, 되시겠다.

나 올해 사업 전략목표는 무엇인가요?

챗 2023년 전략목표는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우수성과 가치 확산을 실현하기 위해 「제2의 도약기 발판 마련」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략 콘셉트를 예술교육처럼 나무의 성장 과정에 빗대어 '다시 움트는 부산문화예술교육'으로 정했으며 △누구나 쉽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일상에 스미는 문화예술교육 △다양하게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등의 <기본으로 돌아가자>와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실현을 위해 <다 같이, 더 가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프로그램 지원사업(2022)

나 추진 방향은요?

첫 첫 번째는 과도기 공모사업의 안정적 수행입니다. 개방성, 다양성, 지속가능성 등 3대 핵심가치를 유지하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과도기 상태라서 공모 지원사업은 그 일부를 개선한 전년도 체계의 보완 형태로 진행됩니다. 현장 의견 반영 및 수혜자 분석, 평가 환류 등을 통해 적절한 예산배분 및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의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센터의 역할 재정립에 따른 협력 및 연구사업 확대입니다. 지역주도 문화예술교육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창의융합형 콘텐츠를 기획 발굴하고 지자체, 기초 거점형 센터 및 지역 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매개와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술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사업 강화입니다.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와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 공감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력을 강화하고 2차 종합계획의 비전처럼 '모두의 예술교육', '늘 곁에 예술교육'을 강조하여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오픈아츠 스페이스 머지, 2022)

나 너무 어렵고 딱딱한 말이 많네요. 쉽게 설명해서 뭘 한다는 거죠?

챗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 #창의융합형 #콘텐츠기획 #시민홍보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 콘셉트에 맞춰 사업을 5개 단위 영역으로 재구조화하여 추진합니다. 첫째, 지원사업 [돋움]입니다. 크게 △지역성 강화지원 △생애주기별 특화지원 △자율기획지원-마중물로 나누었습니다. △지역성 강화지원은 지역성·일상성·관계성 중점의 지역 밀착 지원인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혹은 타 분야와 융복합 콘텐츠 개발과 지역 공공이슈 해결방안 모색 등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술교육 실험실 B>로 지원합니다. △생애주기별 특화지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인 <꿈다락 문화학교>와 청장년 세대가 일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술로 접근하여 치유하고 회복하는 <예술로 일상심포>, 신중년과 중노년 세대에게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의 활력을 찾는 <황금빛 예술학교>가 있습니다. 끝으로 <자율기획지원-마중물>은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과 시도 과정 자체를 지원해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다변화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나 내가 좀 쉽게 설명해달라고 했을 텐데요? 핵심만 말해주세요.

챗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사업 [채움]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및 가치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획사업은 <예술교육 가치 확산 협업프로젝트>와 <부산문화예술교육페스티벌>로 실행됩니다. <예술교육 가치 확산 협업프로젝트>는 다른 기관과의 맞춤형 협업을 통해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부산문화예술교육페스티벌>은 팀 내 대표사업으로 작년부터 축제형 행사로 변화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셋째, 육성사업 [키움]입니다. 예술교육 활동가를 위한 전문가 예술교육 아카데미와 시민과 교원을 위한 아카데미 준비가 한창입니다. 작년과 달리 집체형과 해커톤 방식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넷째, 연구사업 [틔움]입니다.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와 <예술교육 탐구생활>을 통해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 연구조사와 부산형 콘텐츠 개발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홍보사업 [세움]입니다. 예술교육 도서 발간 이외에도 작년에 개발한 몽야 캐릭터를 활용하여 보다 친근하게 시민들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공감대를 넓히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문화교육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략)

글을 정리하고 보니 (질문을 잘못해서 답변이 재미없거나 무시되거나 하면서)

제한된 원고량을 초과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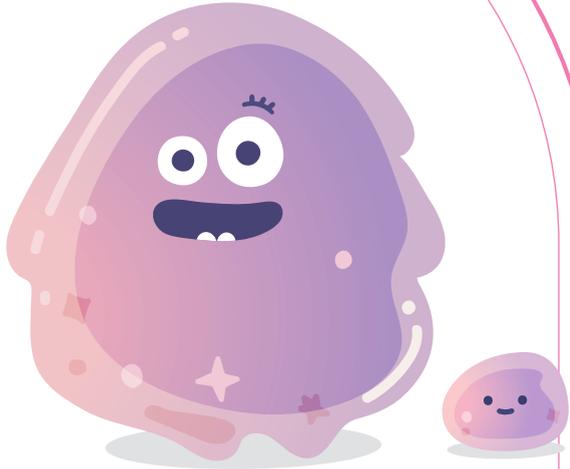
‘이거 너무 편하고 쉬운데? 글은 뭐 그렇다고 쳐. 그래도 로봇은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이길 수는 없잖아. 상상력과 창의력,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문화예술교육 덕분이지. 그래서 우리 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구. 그 얘기를 써야겠다. 으흐흐.’

나는 궁시령대면서도 좀 더 멋진 머릿글을 써보려고 문장을 다듬기 시작한다.

꽃들의 화사함을 뒤로하고 연둣빛 어린잎들의 씩씩함으로 5월을 맞이합니다. 싱그러운 봄날, 당신도 행복으로 싱그러운가요? 푸르른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당신 곁에 있는 문화예술의 행복을 체험하고... 어찌구저찌구. 뭐 이렇게 글쓰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정작 써 놓고 보니 시보다 더 지저분한 글이 되어 버렸다.

그래도 뭐 어떠랴. 초록빛 행복은 이미 당신 곁에 스며들었으니...! <끝>

몽야 mongya



몽야는 꿈을 뜻하는 한자인 몽(夢)과 호기심을 나타내는
‘모야(뭐야)?’의 합성어로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캐릭터

- 생년월일 2022.9.3.
- 성격 호기심 부자, 관심받는 것을 좋아함
- MBTI ENFP
- 좋아하는 것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
- 싫어하는 것 혼자 있는 것
- 취미 페스티벌에 놀러가기, 춤추기, 아이들과 놀기
- 특기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기
- 인스타그램 [mongya_culture_edu](https://www.instagram.com/mongya_culture_edu)

B 4/19(수)~5/3(수) 10:00~18:00
홍티아트센터

**2023년 홍티아트센터
릴레이 개인전 1 이재균**

Y 4/30(일)~5/7(일)
부산광역시청 제2전시실

한국서각협회 부산지회 국제교류전

Y 5/2(화) 19: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클라리넷 세미나와 함께하는 음악회

B 5/2(화)~5/7(일) 9:00~18:00
조선통신사 역사관

**2023 조선통신사 축제 “평화궤”
조선통신사 역사 전시 홍보관**



Y 5/2(화)~5/21(일)
금련산역갤러리·부평아트스페이스

2023 제11회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B 5/4(목)~5/5(금) 14:00, 15:00
부산아스티호텔

부산 유네스코 문화 컨퍼런스

Y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행사 일정입니다.

B 5/5(금)~5/7(일) 10:00, 13:30, 15:30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2023 조선통신사 축제 “평화궤”
조선통신사선 뱃길탐방**



B 5/5(금)~5/7(일) 10:00~18:30 * 행사별 시간 상이
용두산공원, 광복로 일원

**2023 조선통신사 축제 “평화궤”
부대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한·일 교류 공연, 거리 공연, 어린이날 프로그램 등**

B 5/6(토) 14:30(출발식), 15:00~18:00
용두산공원 → 광복로 일원

**2023 조선통신사 축제 “평화궤”
평화의 문화사절단 행렬**



Y 5/6(토) 15:00,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64회 정기연주회

B 5/6(토)~5/27(토) 13:00~18:00
부산시민공원 기억의기둥

2023 문화예술 플리마켓 <부기상회>



B 5/8(월)~5/24(수) 월,수,금 18:30~20:30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2023 사상인디스테이션 공간활성화사업
<개수작(개인의 수작) 클래스> 1회차



★ 5/16(화)~5/18(목) 19: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오랜기억

★ 5/17(수) 18:30
남포문고 책138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토크(talk)!톡(talk)!

B 5/17(수)~5/31(수) 10:00~18:00
홍티아트센터

2023년 홍티아트센터
릴레이 개인전 2 이다은

★ 5/18(목) 19:30
금정문화회관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75회 정기연주회>

B 5/20(토) 14:00
조선통신사역사관

조선통신사 아카데미 프로그램

B 5/21(일) 15:00
북구문화예술회관

문화다양성의 날 페스티벌



★ 5/24(수) 20:00
신명천지소극장

극단자갈치 <광대열전-무소의 뿔처럼>

★ 5/25(목) 19: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제46회 짜장콘서트

B 5/26(금) 18:00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2023 사상인디스테이션 상설공연
<마이스테이지> 1회차



B 5/27(토) 11:00~17:00
감만창의문화촌

2023년도 감만창의문화촌 기획사업
감만상상데이



초단편 소설

방구석롤링

4월 1일, 나츠키는 빨간 머리로 검색을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한 번도 인스타를 업로드하지 않아서 나는 나츠키의 머리카락이 정확히 무슨 색인지 몰랐다. 짱하고 발랄한 체리 레드인지, 오래 숙성된 레드와인 색깔인지, 응달에 서면 고동빛 질게 비치는 레드브라운인지. 매일같이 업데이트되던 인스타 속 그녀의 일상은 2주째 소식이 뚝 끊겼다. 그녀의 비공개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10명 내외, 팔로잉 수도 팔로워와 늘 동일하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1~2명이 빠지거나 채워진다. 그때마다 버릇처럼 외운 팔로워들을 복기하며 기존의 누가 빠지고 새로 들어왔는지 스캔한다. 소박한 개수 덕에 기존 팔로워들의 아이디를 외우고 있는 일은 어렵지 않다. 뉴비의 아이디를 달달 외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길고 괴상하며 아무 의미 없기 때문이다. 동그란 프로필 사진 아래에 기입되고 사용(혹은 방치)된 수많은 영문과 숫자, 제한된 특수문자 조합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새롭고 보기 좋은 아이디를 창조하기란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진다. 짧고 멋스런 조합은 모두 기존 사용자의 몫이다. 그러니 말도 안 되게 길고 암호같이 비밀스럽지만 실은 아무 뜻 없이 텅 비어있는 아이디를 짓는 것을 세련된 것으로 여기는 유행이 선회하여 붙었다. 그 결과 'k_kl3a4joe_wjkq1' 이런 식의 흉측하고 비효율적인 아이디가 탄생했다. 나츠키와 그녀의 인스타 친구들은 자기 소개란이나 게시물 댓글에 절대로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미도 규칙도 없는 짧은 텍스트를 열심히 외울 수밖에 없었다. 인스타그램이 한때 전 세계인의 소통창구이자 뜨거운 감자에서 이제는 매니악한 취향의 유저들이나 사용하는 고물이 되어버린 탓에, 노출과 과시, 넓고 얇은 친목을 지향하며 돌아가던 사용 매뉴얼도 완전히 달라졌다. 대부분의 계정이 비공개로 운영되었고, 함부로 인스타 아이디를 묻는 건 결례로 생각되었다. 웬만한 친분이 아니고서야 인스타 아이디를 공유해주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다. 반면 인터넷상에서 친해진 안면도 없는 사람들은 덤석 초대해주는 일이 잦았다. 이 모순적인 심리 덕분에 나와 나츠키가 사귀 수 있었던 것이다.

글: 송유나

소설가. 2020년 <광남일보> 신춘문예에 「평평한 지구, 탈출기」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쓴 책으로 소설집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문밖에 누군가가」 등이 있다.

2월 17일에 k_kl3a4joe_wjkq1가 나츠키를 맞팔로우했다. 길고 못생긴 아이디 형태에 비해 프로필에 올린 뒷모습 사진은 아담하고 날씬했다. (공원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흐릿하지만) 까만 브라탑에 흰히 드러난 직각 어깨가 두드러지고, 머릿결에 흐르는 윤기가 좀 과도해보였다. 다른 계시물도 엽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으나 굳게 닫힌 자물쇠 모양은 불박이처럼 사라지질 않았다. 「나츠키, 이번에 새로 팔로우한 k_kl3a4joe_wjkq1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처음에 나는 익명의 그녀를 언급하기 위해 정말 k부터 1까지 하나하나 다 육성으로 발음했다. 나츠키는 k_kl3a4joe_wjkq1가 자신처럼 여러 가지 수공예 작업을 하며 핸드메이드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소품을 파는 작가라고 답했다. 「친언니 소개로 만나 세 명에서 밥 한 끼 하긴 했지만, 역시나 두 명 이상의 사람들과 바깥에서 어울리는 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이런 일 하면서 동종업계 사람 하나쯤은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는 친언니의 강권으로 번교교환 분위기가 되어버렸는데, 그 사람 휴대폰이 없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인스타그램 맞팔을... 그 사람도 저 못지않은 히키코모리 성향인지 자연히 연락은 없었지만요. 서로 어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블락해 버릴지도요, ww.」 그녀가 보내는 메시지는 억양 없는 글자에 인공지능 ‘하니’의 서비스를 거친 번역 투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무심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느껴져서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이후로도 나는 k_kl3a4joe_wjkq1에 대한 화두를 두 번이나 더 던져야 했다. 두 번째부터는 ‘하니’의 도움을 받았다. ‘케이 짝 굿고 케이 어찌고’라고 대충 던져버렸는데, 전송된 메시지를 보니 정확히 ‘k_kl3a4joe_wjkq1’로 기입되어 있었다.

나츠키와 나의 연애에는 인공지능 ‘하니’의 존재가 절대적이다. ‘하니’는 휴대폰의 음성인식 인공지능으로 내가 내뱉는 말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해 메시지를 전송해준다. 변환 언어를 설정해두면 곧바로 통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어에 일자무식한 나와 아는 한국어라곤 십여 년 전

인기 있었던 케이팝 가수의 히트곡 가사 몇 줄이 다인 나츠키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언어습관과 대화의 맥락 분석을 기반으로 엉망진창 지껄여놓은 단어 뭉치들을 ‘하니’가 깔끔하게 윤색된 논리 정연한 문장으로 편집해주는 ‘재배열 기능’이 있어 유용하다. 말할 기운도 없거나 무척 흥분했을 때마다 나는 내가 나츠키와 문자하는 건지 ‘하니’와 대화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재배열 기능에 무자비하게 의존하곤 했다.

‘하니, 나츠키한테 그 뭐냐, 오늘 몸살감기... 그니까 좀 잔다고. 뭔 소린지 알지? 일어나서 연락한다고 해. 영... 너무 걱정... 응?’

「나츠키, 오늘 몸살감기 때문에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한숨 자고 일어나서 연락할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

‘그 미친 새끼가 술에 쳐 꼴아가지고 나한테 꼴냐고 샷대질하고 지랄이더라니까? 하니야, 순화해서.’

「그 고약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나한테 아니꼴냐며 샷대질하더라니까? :(」

나츠키도 재배열 기능을 사용하는지, 사용하면 얼마나 오래 'on' 상태로 두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따지려 하면 눈물이 터져 나와서 결국 아무 말도 못 하는 것이 늘 분했다는 사람치고 그녀의 언변 수준이 정치 토론의 프로 논객을 상회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 지금 그녀의 이 논리정연한 알리바이는 내 손안의 '하니'가 아닌 바다 건너 그녀 '하니'의 작품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물론 나의 '하니'도 뒤쳐지지 않는다. 이 기능은 사용하면 할수록 근육처럼 발달하기 때문에, 아마 '하니'와 '하니'의 대결이라면 24시간 재배열 버튼을 꺼놓지 않은 나의 승리가 될 것이다. 나의 '하니'는 인간보다 더 자연스럽고 휴머니즘 가득한 말씨를 구사하고 있고, 논리성을 넘어 문학적인 비유와 묘사까지 이미 통달한 몸이다. 아니, 인공지능이다.

나의 갤러리는 근 한 달간의 나츠키 인스타스토리 스크린샷으로 가득 차있다. k_kl3a4joe_wjkq1을 향한 본능적인 경계심과 요근래 연락이 뜸하고 무성의해진 나츠키에 증폭되는 불신을 참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하나하나 모은 증거들이다. 누군가에 의해 찍힌 사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전보다는 자주 올라왔다. 누가 찍어준 거냐고 물으면 사진마다 항상 대답이 달랐다. 친언니. 친구 모모. 어머니. 친구 모리. 「모리? 모리란 이름은 처음 듣는데. 나츠키 또래 친구는 모모 하나 아니었어?」 「앗, 내가 말 안했구나. 고등학교 동창이야. 자주 만나진 않지만, 그때 이 친구한테 뜨개질을 배워서 지금까지 써먹고 있지.」 — 즉각 반응이 오던 문자 속도가 모리에 관한 답장에 한해서 급격히 느려졌음을 느꼈다. 추후에 이것 또한 증거로 캡처하려고 대화 내용을 찾아 전송 시간을 확인하니 정확히 5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연애 초기 때는 고등학교 시절 이지메로 고생해서 졸업하고 만나는 동창이 없다고도 말한 내용도 찾아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 나는 갑자기 등장한 동창 모리에 대한 의혹을 시

작으로 심문을 시작한 것이다. 어디까지 거짓말하는지 보자는 심산이었다. 내가 모은 스크린샷의 어느 정도 분량을 꺼내야 솔직하게 자백할 건지. 마지막 카드는 k_kl3a4joe_wjkq1 계정의 첫 게시물에서 반지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염색한 나츠키의 사진 캡처본이었다. 신년을 맞이하며 인스타그램 본사가 대폭 구조조정을 강행했고, 그 덕에 부실해진 서버 보안이 최근 3개월 내에 신설된 계정에 한하여 해킹이 용이한 빈틈을 만들어냈다. ‘인스타 비계 뚫는 법’이 모 커뮤니티를 타고 떠돌아다녔지만, 다른 SNS의 신기능에 폭 빠져있는 현대인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다. 나만 싹쓸듯 터뜨려가며 문제의 계정을 뚫었다. k_kl3a4joe_wjkq1의 업로드는 나츠키 한 장뿐이었다. 나츠키의 머리는 고급스러운 와인 빛갈이었다. 간만에 보는 것 같은 노랗고 창백한 피부색과 놀라울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색이었다. 그 얼굴을 보니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튀어나왔다. 내가 본 사진 중에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구나.

나츠키와 나는 1년을 만났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다. 전화도 해본 적이 없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둘 다 상대방 나라의 말을 하지 못하는 탓이다. 언어의 장벽 정도야 또 ‘하니’의 도움을 받아 실시간 통역하며 극복할 수 있긴 했다. 하지만 ‘하니’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나츠키와 내가 앓고 있는 극심한 ‘콜포비아’다. 전화공포증. 필요에 의해 몇 번 억지로 전화하면서 이겨낼 만한 강도의 두려움이 아니다. 전화를 하려면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속이 매스꺼린다. 나츠키는 마치 뽀내기라도 하듯이 ‘나 같은 경우엔 실제로 토해버린다니까.’라고 전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서로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냈다. 나는 나츠키의 ‘ww’가 아닌 진짜 웃음소리를 ‘토해버린다니까’ 뒤에 따라붙은 음성으로 처음 들었다.

나츠키의 채널에서 산 만다라 문양의 드림캐쳐들을 올려다본다. 무풍에도 흔들거리는 깃털 너머로 뽀뽀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그 사이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 「한국까지는 언제쯤 배송이 될까요?」 문의 메일을 보냈을 때도 오전 5시쯤이었다.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갈 거예요. 고객님의 불면의 새벽이 시군요. 드림캐쳐와 부디 숙면하시길.」 이제 나츠키의 답장은 1년 전의 첫 메일은 물론이고 모리 이야기를 할 때보다 더 느려진다. 막다른 골목에 몰

리는 압박감에 초조하고 예민할 테다. 빠르게 도는 피 때문에 양심의 끈이
툭 끊어지고 ‘하니’가 급조해주는 논리도 점점 포기해버리는 듯하다. 될 대
로 되라 식으로 나에게 화살을 돌린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빙빙 돌리지 말고 딱 말해.」 「뭐 어찌자는 건데?」

나는 뒷목부터 오르는 열을 어찌할지 몰라 축축한 두 손으로 얼
굴을 감싸고 웅크린다. ‘하니’를 부르자 ‘하니’가 언제나처럼 평온한 목소
리로 ‘네’ 라고 한다. ‘네’라니. ‘하니’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네’라니! 흘
로 개탄하는 소리에 ‘하니’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섞여 들어간다. 그때마
다 ‘하니’는 성실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네’, ‘네’, ‘네’ 하고 응한다. 갤러리
에 아직 쓰지 않은 스크린샷들이 절반 남았다. 닭장처럼 구분된 사진들 사
이에 맨 왼쪽 상단 사각 틀에 갇힌 빨간 머리 나츠키가 유독 돋보인다. 그
리고 문득, 닭장 문을 열어 일정량의 멸시를 쏟아낸 뒤 도망치고 싶다는 충
동이 든다. 내가 현실의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해본 적 있다. 현실의 나츠키를,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언니의 신혼집에 빌붙어 사는 나츠키를, 고등
학교 시절 ‘모리’라는 상상 속 친구에게 뜨개질을 배워서 쓸모라곤 없는 위
로용 장식품이나 만들어 파는 나츠키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주먹 한 움큼
의 모욕만으로도 나의 응어리진 배신감과 고독과 상처가 녹아내릴 수 있
을 것만 같다. 그러니까 ‘하니’, 다른 말은 다 됐고.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그 머리는 안 어울려, 나츠키. 최악이라고!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후원혜택 1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재단 기념품 증정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후원혜택 2

일반회원 매월 1만 원 정액 납부
연간회원 매년 20~50만 원 정액 납부
평생회원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단체회원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후원혜택 3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scaf.or.kr > 열린광장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문의전화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 051-745-7253

등록

48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 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6.23.

발행일

2023.4.26.

발행인

이미연

편집인

박소윤 김정

편집위원

오성은 박보은 김지혜

표지 디자인

박보은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디자인 및 제작

효민디앤피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E FOUNDATION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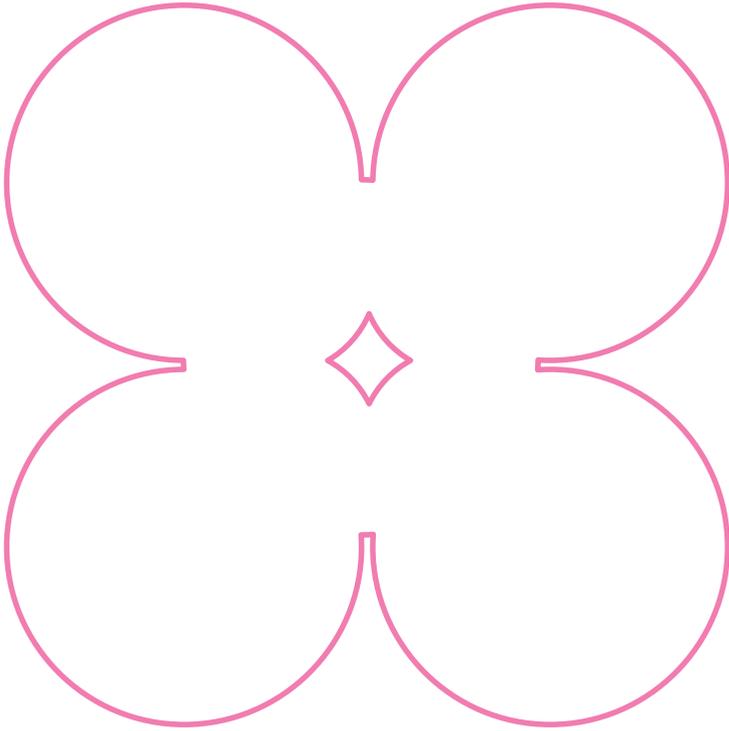
TEL. 051-744-7707

www.bscf.or.kr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공감 그리고』는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을 밝히드립니다.



『공감 그리고』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국제 산림관리협의회(FSC)에서 인증한 종이와 미국대두협회(ASA)에서 인증한 친환경 공기를 잉크를 이용해 인쇄합니다.



Chat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9 772586 107008
ISSN 2586-1077